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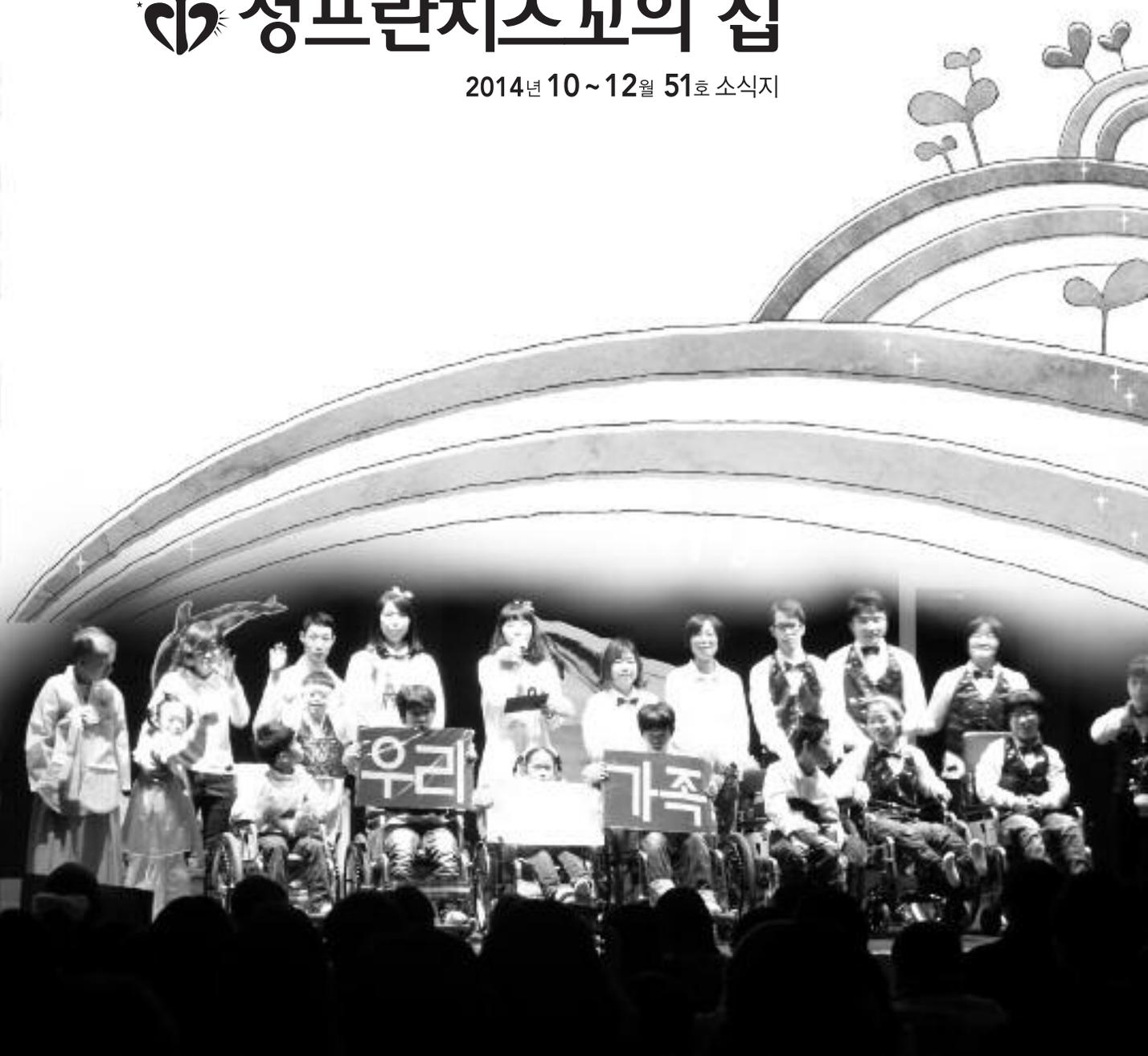
No. 51

작은 꿈과 소망을 이루어 가는



성프란치스코의 집

2014년 10~12월 51호 소식지



2014년 한 해를 보내며...

이혜정 자원개발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 지난 다이어리를 정리하고 새 다이어리를 구입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눈 깜짝 할 새 한 해가 지난 것 같지만 다이어리를 정리하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필름처럼 스쳐지나갑니다.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일, 계속 꺼내어 보고 싶은 좋았던 일... 잘 기억나지 않았던 시간들을 짧은 메모 한 줄에 생생하게 기억해 내며, “올 한 해도 수고했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여 줍니다.

새 다이어리에는 올 한 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념일을 메모하며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보겠노라며, 특별한 한 해를 만들어 보겠노라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난 시간들을 정리해 보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은 평범한 날들로 가득합니다. 간혹 놀랄만한 사건이나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러한 일들은 가끔이면 족합니다.

일상의 지루함을 견디는 일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간들이 결국 특별한 인생을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2014년 한 해를 미련 없이 보내고, 특별한 2015년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평범한 일상을 만들어 봅니다.

Contents

- 02 목차
- 03 여는글_이혜정 자원개발
- 04 우리들의 이야기 I_이기원 이용자
- 05 우리들의 이야기 II_최혜원 생활지도원
- 06 우리들의 이야기 III_박진희 생활지도원
- 07 활동 보고(10월~12월 활동보고)
활동 계획(1월~3월 활동계획)
- 10 당신이 머무는 자리_후원 및 자원봉사 현황

후원회 미사 안내

성프란치스코의집 또 하나의 가족인 후원자·자원봉사자 여러분을 위한 후원회 미사가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봉헌됩니다.

날짜 : 2월 10일 / 3월 10일 / 4월 7일

시간 : 19시 30분

장소 : 대연성당



도돌이표 나눔



이혜정 자원개발

얼마 전 자립한 이용자에게서 뜻밖의 문자 한통을 받았다.
 “이모, 잘지내고 있지요? 다름이 아니라 결연후원을 하고 싶은데.. 많이는 못하지만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성프란치스코의집 가족으로 후원자분들의 도움을 받아왔었는데, 후원자로 다시 인연을 맺겠다는 이용자의 문자에 기특함과 고마움, 그리고 부끄러움이 함께 교차했다.

자립을 한 후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통해 직장을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수입으로만 생활해야 하기에 그다지 넉넉한 형편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 사정을 알기에 선뜻 후원금을 받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본인이 많은 생각 끝에 쉽지 않게 내린 결정을 알기에 그 마음을 존중하기로 했다. 잠시 후에 “금액이 크지 않아요.. 많이 못해서 죄송해요.”라는 메시지가 왔다.

금액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고향(친정)과도 같은 곳에서 자신이 이뻐하던 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며,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 한 자락이 숫자로 표현되는 액수보다 더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다. 그 소중한 마음에 대한 고마움을 다 표현하기에 부족하지만 짧은 문자를 통해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느끼게 해 주고 싶었다.

성프란치스코의집에서 생활하다 성인이 되어 스스로 자립하는 가족들이 여럿 된다. 이들은 성프란치스코의집이 고향과도 같아 명절이나 기념일이 되면 인사를 오고 자그마한 선물을 들고 와 마음을 전하곤 한다. 이러한 모습들이 현재 재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생들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삼촌과 이모들에게는 보람이 된다. 마냥 어리고 보살핌이 필요했던 존재에서 이제는 자신들이 받았던 사랑을 다시 돌려주고 나눔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참으로 기특하고 대견하다.

이는 아마도 지금껏 성프란치스코의집에서 생활해 오면서 항상 곁에서 함께 해 온 수많은 후원자분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소중한 나눔을 보아 왔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가족에서 새로운 후원자로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된 이용자의 모습을 통해 후원자분들의 따뜻하고 소중한 마음에서 시작된 나눔의 씨앗이 성프란치스코의집에서 더 큰 희망으로 깊숙이 뿌리 내려가고 있음을 느낀다.

앞으로도 후원자분들의 소중한 나눔이 계속되어 더 튼실한 뿌리를 내리고 도돌이표 나눔으로 열매 맺어나가길 기대해 본다.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전하는 감사편지



이기원 이용자

안녕하세요. 저는 성프란치스코의집 바다방에서 지내는 이기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바다방에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개성을 가진 6명의 이용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만형으로서 동생들을 다독이고 보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남학교 전공부를 졸업하고, 직업재활시설인 도영하우스에 취직을 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것이 쉬운 도전은 아니었지만, 현재는 누구보다 빨리 적응을 하여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매 월 급여 봉투를 볼 때 마다 제가 흘린 땀과 노력에 대한 대가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자립을 하여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꿈입니다. 지금처럼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자립을 하여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장한 것처럼,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후원회 미사를 좋아합니다. 저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는 후원자 분과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는 봉사자분과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좋습니다.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게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항상 발전하고 노력하는 기원이기 되테니 앞으로도 곁에서 함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본 해외문화탐방을 다녀와서..



최혜원 생활지도원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주최의 2014년 해외문화탐방 소식이 전해졌다. 급하게 잡힌 일정 탓에 바쁜 일과와 준비에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여행 출발을 맞았다. 새벽부터 일어나 공항에 들어서자 그제야 왠지 모를 기분 좋은 긴장감과 설렘에 아이와 마주보며 웃을 수 있었다.

공항이 처음인 영애는 비행기를 보자마자 “우와!” 감탄을 금치 못했으나 비행기 안에서는 무섭다며 내 손을 꼭 잡더니 금세 잠들어버렸다.

우리가 여행할 곳은 북큐슈 일대. 도착지인 후쿠오카는 생각보다 가까웠다. 제주까지의 시간만큼 금방 닿았다. 식당에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고 버스로 이동. 또 이동.

여행 내내 이동 중 버스 안에서의 기다림은 길었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창밖 풍경에 그리 낯선 기분은 들지 않았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하우스텐보스였다. 네덜란드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이곳은 이국적인 건물과 아기자기한 볼거리들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작은 강을 따라 배를 타고 구경하였는데 무엇보다 야경 속 불빛이 건물과 거리를 더욱 예쁘게 장식했다. 하우스텐보스 내 아름다운 호수마을에서 첫날밤을 보내고 둘째 날은 오이타현으로 이동했다. 하모니랜드라는 야외테마공원에 들렀는데 화려한 캐릭터들보다는 며칠 째 내리는 비 덕분에 너무 스릴 넘치게 탔던 놀이기구가 인상 깊었다. 오후에는 유후인에서 공예품을 전시하는 전통거리와 유후인 안개의 원천이 된다는 킨린호수에 들렀다가 벳부의 가마도 지옥온천에서 뜨거운 온천물에 족욕을 하며 여행을 피로를 풀었다. 저녁에는 호텔 근처 마트에 들러 영애가 좋아할만한 일본 과자를 찾느라 어느 학생에게 짧은 일본어를 동원하여 애써 질문하였는데 “저.. 한국인인데요.” 라는 대답에 서로 머쓱해져서 웃기도 하였다. 셋째 날은 아이가 가장 기다리던 사파리 체험.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아프리카 사파리에서는 정글버스를 타고 직접 먹이를 주는 경험도 할 수 있었다. 특히 캥거루가 너무도 천연덕스럽게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니는 바람에 놀라서 우는 아이들도 있었다. 아소산에서는 화산이 내뿜는 연기를 가까이 볼 수 있었으며 화산에 올라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여 매우 아쉬웠다. 스머프 마을이라는 별명이 있는 아소팜 빌리지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는 온천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다. 넷째 날에는 가장 궁금했던 유즈노키 레스토랑에 들렀다. 지적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어울려 일하는 곳.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곳에서 함께 하는 이들이 참 빛나 보였다.

여러 곳을 탐방하느라 금세 3박4일이 지나가고 후쿠오카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언제 또 와요? 다음에 와요!” 라는 아이의 바람처럼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아쉬운 마음이 더 커졌다. 또한 그 마음만큼이나 아이도 나도 가슴 벅찼던 첫 여행이기도 하였다.

성프란치스코의집에서의 새출발



박진희 생활지도원

길거리를 울긋불긋 아름답게 물들이던 단풍잎이 길가를 자욱하게 채우던 가을, 첫 출근하던 날이 바로 며칠 전 같은데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내리고 퐁퐁 언 손을 호호 불며 길을 건너야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건강에 이상이 생겨 휴식을 필요하다고 느끼던 시기에 새로운 도전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2년 동안의 복지관 근무를 과감히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복지관에서 가족행사를 진행할 때 보았던 장애인 가족으로 구성된 사물놀이단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물놀이단은 4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년간 연습 끝에 현재는 지역사회에 배운 것을 다시 공연활동을 통해 환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연을 보면서 장애인 친구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었고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공부도 시작해보고 다양한 일들을 시도해 보던 중 2014년 10월 성프란치스코의 집과 소중한 인연이 닿아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하던 날, “이모”라고 부르며 제 품에 안겨 따뜻하고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겨주던 아이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생활하다 성프란치스코의 집에 와 밝고 친근난만한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저 또한 밝아진 것을 느낍니다. 성프란치스코의 집 아이들과 함께 지낸지도 벌써 2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2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날의 천사같은 아이들이 이제는 장난꾸러기가 되어 매일 매일 새롭고 다양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정신없이 지나간 시간동안 제 자신이 조금씩 변화하고 적응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지금은 조금씩 알아듣게 되고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조금씩 아이들의 성격도 파악하게 되고 고집을 부리거나 화가 나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허둥지둥 거렸지만 이제는 달래는 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장난이 심해 언제 어디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항상 긴장 속에서 생활하지만 아이들의 친근난만한 웃음에 하루를 보내는 힘이 생긴답니다. 제가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저에게 주는 아이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성프란치스코의 집에서의 생활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과 섬세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성프란치스코의 집 생활지도원으로 첫 걸음을 때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생활지도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겪을 수많은 경험 또 그 안에서 한 발짝 더 성장한 모습의 저를 상상해봅니다.

단풍이 알록달록 아름답게 물들던 날 면접을 보러 오면서 가졌던 설레임과 각오, 그리고 떨렸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늘 처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되새기면서 성프란치스코의 집 생활지도원 박진희라는 이름을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앞으로도 제 몫을 잘 해나가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들의 박 2일 - Just Go 대한민국 시즌 3” (10월 4일~10월 5일 / 1박 2일)

10월은 경남 진주 일대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진양호 전망대, 진양호 동물원, 유등축제, 코스모스 축제를 즐기며 가을의 정취와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 **종사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10월 13일)

종사자들의 성차별 의식 함양과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2014년 부산 지방 공단 스포월드 소망리퀘스트 지원사업 “나만의 소중한 공간”**

스포월드 소망리퀘스트 지원사업으로 아동용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주변의 위험 요소로부터의 보호와 놀이, 휴식, 보행연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습니다.



🕒 **해외문화탐방** (9월 29일 ~ 10월 1일 / 3박 4일)

부산광역시 부산장애인시설연합회의 주관으로 3박 4일 동안 일본 북큐슈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후쿠오카의 하우스텐보스, 오이타현의 하모니랜드, 유후인의 킨린호수, 벳부의 가마도 지옥온천, 사파리 체험, 아소산의 아소팜 빌리지 관광과 온천체험을 하였습니다. 색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 자원봉사자 간담회(11월 22일), 자원봉사 단체 평가(11월 ~ 12월)

시설과 자원봉사 단체 간의 상호간 야기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활동의 의미와 만족감 부여를 위한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자원봉사 단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자원봉사자분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우리들의 박 2일 - Just Go 대한민국 시즌 3”(11월 15일 ~ 11월 17일 / 2박 3일)

11월에는 강원도 일대를 여행하였습니다. 인제 자작나무 숲길, 교동성당, 강문숫대다리, 경포호, 선교장, 오죽헌, 통일공원, 시네라마, 낙산사, 청룡포 전마대, 선암마을 등 2박 3일 동안 최대한 많은 곳의 관광지를 보고 느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타이트한 일정이었지만 가족들 모두 피곤한 기색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종사자 인권교육(12월 16일)

시설 내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 인권 실태 조사, 인권 감수성에 대한 내용으로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크리스마스 행사(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성프란치스코의집에도 산타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올 해는 특별히 외국인 산타할아버지가 방문해 멋진 선물을 주고 가셨는데요, 외국인 산타할아버지를 처음 본 아이들은 무척 인상이 깊었나 봅니다. 외국인 산타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든지 벌써부터 다음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 송년의 날 행사(12월 20일)

2014년 한 해 동안 성프란치스코의집을 사랑해주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송년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 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의미로 “도약”을 주제로 한 “도약... 아름다운 비상”이라는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행사가 더욱 더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환경에서 찾아볼 것을 약속드리며,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Thank you~!!”

후원자분들의 따뜻한 나눔으로 풍성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냈습니다.
한 해 동안 성프란치스코의집 가족들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 사랑을 나누어 주신 후원자, 자원봉사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활동계획
(1월 ~ 3월)

▶ 1월 ◀

- 겨울방학 현장체험 활동

▶ 2월 ◀

- 사업평가
- 자원봉사단체 교육
- 설명절 프로그램

▶ 3월 ◀

- 부활계란 나누기

당신이 머무는 자리

(2014년 10월 1일 ~ 12월 30일)

지원봉사

가사지원 - 목욕

박재홍 라온공동체 대한적십자사보건교사회
부산30대의쉼터 동아대홍보대사에그러나

가사지원 - 세탁

강원순 김미라 김미자 김 랑 김민정 김선미 김영신
김정숙 박명수 박삼래 서영숙 성꼭지 신구진 안정희
양혜진 이강연 이명열 이명화 이효숙 임국자 임옥희
정혜아 채정숙 허경희 겸손하신모후(석포성당)
교회외어머니 상지의옥좌
슬기로우신어머니(우동성당) 모든성인의모후(광안성당)
능하신정녀, 영광의성모(남천성당)
희망의모후, 위로자의모후(좌동성당)
성실하신어머니(연산성당) 부산여성회관수선팀

가사지원 - 주방(조리, 설거지)

김정옥 김현석 노영임 박영자 송채근 오진선 이 나
이다은 이안나 이명숙 윤성자 장명숙 전정옥 장승환
황정애

노력봉사

백정희 지안순 허석비(못골성당신비로운장미)
국군지휘통신사령부55통신지원대
남부소방서의용전대 내성로타렉트
부산은행대연동지점 솔잎
여럿이함께 즐거움의원천(우동성당)
청소년1,2팀 신세계면세점노동조합
해군작전사령부헌병전대 해군7기동전단
휴메트로청솔회 평화지킴이단

학습지원

김미주 김예림 김지유 김민지 김혜민 문경자 박재홍
박현희 손서연 손은선 손유리 신지은 이수빈 이승재
이은정 임혜란 표혜정

학프로그램 및 여가생활지원

정맹룡도예공방 경성대학교물리치료과 부경대학교민심사랑

후원

개인후원

강민정 강봉상 강수일 강승원 강영숙 강정인
강주현 강지연 강태한 강홍석 고남우 고영실
고재동 고정심 고진수 고평년 공숙희 공주경
공태섭 공태임 곽영호 곽일수 구영자 구찬희

권영재 권오봉 김경란 김경량 김경분 김경선 김경팔 김경훈 김국선
김근용 김근태 김기순 김남석 김동준 김명신 김명한 김명희 김미림
김미향 김민정 김보순 김봉균 김상두 김선미 김선옥 김선환 김성근
김숙희 김시교 김시윤 김양경 김양희 김연순 김연주 김영일 김영화
김유진 김윤혜 김윤희 김윤성 김은숙 김은주 김은희 김재민 김점규
김정남 김정엽 김정현 김정환 김종완 김수완 김중화 김주홍 김준희
김지영 김찬우 김창훈 김천일 김춘자 김현정 김현준 김형우 김호용
김효식 김효영 김희수 김희숙 김희주 남기한 남숙희 노기호 노명자
노병태 노수진 노숙애 노옥희 노옥권 도재훈 류애라 류앙아 문영란
문종완 문현정 민경애 민남식 박경숙 박경순 박삼해 박서곤 박선미
박소영 박승부 박승철 박영옥 박영하 박영환 박옥선 박옥희 박윤정
박재석 박정균 박정남 박종주 박종화 박주연 박지영 박지은 박진희
박창수 박현일 박형재 박형택 박혜경 박혜숙 배윤지 백광현 백선영
벽시몬 최안나 서경열 서명옥 서승욱 서승환 서영자 서은정 서장순
서정탁 석숙희 성미정 성병호 성연시 성화자 손은경 손종식 송금이
송병기 송수복 신갑녀 신구진 신승인 신영민 신준설 심영숙 안성현
안영태 양동근 양봉금 양승엽 양신석 양향열 양호권 엄경희 엄성옥
오영미 오정애 오홍일 오희수 우제성 우창렬 유경국 유경근 유근숙
유병규 유성재 유숙준 윤도석 윤원진 윤정애 윤종렬 이건림 이건상
이경설 이경자 이경채 이경화 이광선 이금숙 이기정 이기현 이대영
이대희 이동세 이득희 이미란 이미지 이삼주 이상룡 이상학 이세원
이수봉 이수영 이순화 이신호 이영옥 이옥분 이몽복 이윤복 이윤정
이은일 이임순 이재선 이재영 이재용 이재우 이재환 이정민 이정옥
이정희 이종대 이준석 이준영 이지영 이진아 이창우 이철원 이해정
이혜숙 이해정 이호경 이희송 임승재 임은주 임인학 임일선 장명숙
장우역 장임순 장지향 전근향 전상순 전성훈 전승현 전은지 전채림
전 태 정 란 정금순 정남희 정덕순 정두환 정성민 정숙희 정순자
정승호 정영국 정영이 정용식 정윤정 정은애 정종학 정진연 정찬현
정창식 정춘자 정태동 정태웅 정태성 정해인 정희정 조경숙 조대용
조영현 조옥련 조원열 조용철 조현영 조훈래 조균창 주미혜 주성균
주정삼 치치안 진영준 진혜숙 채수동 최가진 최갑수 최경남 최동인
최민희 최병석 최복례 최서윤 최선에 최숙희 최순자 최승근 최승철
최옥희 최용욱 최인순 최지선 최지향 최진욱 최창희 최혜순 최혜진
추인숙 하차순 하혜숙 한동이 한만섭 한미애 한수남 한수정 한영희
한일선 허수봉 허순이 허 현 현명호 홍간재 홍해숙 홍혜순 익명

기업 및 단체 후원

고은산부인과(김양희) 김재연한의원 김철현정형외과 데레사여자고등학교 바른논안과 성모여자고등학교 부경대학교동아리민심사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부경대지점 이마트단체지원 (주)명성이앤씨 (주)오케이티앤티 (주)유카로오토모빌 (주)코벤 (주)건축사사무소지애이 적십자보건교사회 재속프란치스코형제회부산지구 천사재가복지센터(이미자) 카톨릭실비회(양호권) 커뮤니케이션문 평화장터 해강의원 해피빈 후원회미사봉헌금

결연후원

김기은 김민지 김순점 김현정 박상현 박초롱 박철재 서우영 신은진 양희국 이기욱 이진민 최원용 최혜원 표혜정 (주)한국소방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김영순)

지정후원

김석주(김민경 김민혜) 박철재 (주)동성무역 (주)동하 (주)파라다이스 글로벌 윤현기정형외과

물품후원

고로고로케(임진섭) 강준모박해경 고촌자 공정민 김동규과자점 김경필 김석주(김민경, 김민혜)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박창수한의원 박현희 부산영양교사회 부산여대제과제빵과 부산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석포초등학교 성서초등학교 신윤철 손우진 솔잎 아모레퍼시픽 이은영 임은주 양봉금 오렌지박스(이진근) 오혜숙 윤종렬(하안비둘기) 한마음악곡 황순자 현대상사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마트 평화지킴이봉사단나눔재단 최원석

▶ 4/4분기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단위: 원)

	수 입		사 용	
	기부금	금 액	항목의료비	금 액
이월금		118,154,626	의료비	1,537,450
지정후원금		14,072,000	사무비	14,903,290
비지정후원금		33,683,904	사업비	7,504,420
결연후원금		420,000	재산조성비	7,321,460
계		166,330,530		31,266,620

▶ 2014년 4차 추가경정 예산서 총괄표

(단위: 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구성비	2014년 4차 추경예산액	구성비	증감	
세입	합 계	40,900,000,000	100.00%	2,470,000,000	100.00%	-1,620,000,000
	보조금수입	3,609,521,810	88.25%	2,065,432,620	83.62%	-1,544,089,190
	후원금수입	280,000,000	6.85%	240,000,000	9.72%	-40,000,000
	차 입 금	300,000	0.01%	300,000	0.01%	0
	전 입 금	30,000,000	0.73%	5,000,000	0.20%	-25,000,000
	이 월 금	137,573,621	3.36%	137,573,621	5.57%	0
	잡 수 입	32,604,569	0.80%	21,693,759	0.88%	-10,910,810
세출	합 계	4,090,000,000	100.00%	2,470,000,000	100.00%	-1,620,000,000
	사 무 비	1,340,477,210	32.77%	1,265,917,010	51.25%	-74,560,200
	재산조성비	2,455,140,000	60.03%	977,600,000	39.58%	-1,477,540,000
	사 업 비	252,268,000	6.17%	200,600,000	8.12%	-51,668,000
	잡 지 출	214,790	0.01%	182,990	0.01%	-31,800
	예 비 비	41,900,000	1.02%	25,700,000	1.04%	-16,200,000

▶ 2015년 세입 세출 예산서 총괄표

(단위: 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구성비	2015년 예산액	구성비	증감	
세입	합 계	2,470,000,000	100.00%	3,990,000,000	100.00%	1,520,000,000
	보조금수입	2,065,432,620	83.62%	3,497,296,350	87.65%	1,431,863,730
	후원금수입	240,000,000	9.72%	240,000,000	6.02%	0
	차 입 금	300,000	0.01%	200,000	0.01%	-100,000
	전 입 금	5,000,000	0.20%	30,000,000	0.75%	25,000,000
	이 월 금	137,573,621	5.57%	200,000,000	5.01%	62,426,379
	잡 수 입	21,693,759	0.88%	22,503,650	0.56%	809,891
세출	합 계	2,470,000,000	100.00%	3,990,000,000	100.00%	1,520,000,000
	사 무 비	1,265,917,010	51.25%	1,287,209,010	32.26%	21,292,000
	재산조성비	977,600,000	39.58%	2,457,300,000	61.59%	1,479,700,000
	사 업 비	200,600,000	8.12%	204,408,000	5.12%	3,808,000
	잡 지 출	182,990	0.01%	182,990	0.00%	0
	예 비 비	25,700,000	1.04%	40,900,000	1.03%	15,200,000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전화 부탁드립니다.

또한, 편집과정에서 이름이 빠지신 분이 계시면 양해를 구하며 꼭 전화 주세요~ ☎622-1652, 626-5766 이혜정

사랑을 나누면

행복은 배가 됩니다.



후원안내

- 일반후원 이용자의 생활과 서비스, 시설운영에 쓰이는 비용을 자유롭게 후원
- 결연후원 특정 이용자와 결연하여 후원
- 물품후원 과일, 쌀, 간식류(빵, 떡, 유제품 등), 디펜드 기저귀(소중형, 대형), 하기스 기저귀 (특대형-남녀공용), 하기스 물티슈, 휴지, 어린이 칫솔, 바디워시, 샴푸 등
- 지정후원 성프란치스코의집 재건축 공사비 지원,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지원

사랑을 나눠 주시려면

(예금주 ▶ 성프란치스코의 집)

SC제일은행 507-10-014294 국민은행 556601-01-233237 부산은행 036-01-033700-8

우리은행 1005-201-769468 농협 936-01-105492 결연후원 이용자 개인계좌

모금함, 해피빈 (<http://happylog.naver.com/franlove.do>) 후원참여도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24조,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기부자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해 드립니다. (담당자 ▶ 이혜정 ☎622-1652 · 626-5766)



발행일 2015년 1월 26일(월) (제51호)
 발행처 성프란치스코의 집
 발행인 김희일
 편집인 이혜정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66번길 51(대연동)
 (남구 대연3동 390번지)
 전화 622-1652 · 626-5766
 팩스 622-1625
 홈페이지 www.franciscohome.or.kr
 해피빈 <http://happylog.naver.com/franlove.do>
 이메일 fran1652@hanmail.net
 인쇄·제작 커뮤니케이션 文 (株)T.051.731.4631



경성대 · 부경대역에서 하차 5번 출구로 나오셔서 문현동 방향